동·서 문화융합 결정체 '간다라' 관전포인트는?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붓다'展 9월 30일까지 예술의전당서

페샤와르박물관 소장 유물 중심
'역대·국보급' 규모 67점 전시

파키스탄 '고행상' VR로 제작
가상현실 통해 보고 만지도록

어린이·청소년 도슨트 '눈길'
"역사 통해 종교갈등 해법 제시"

동·서 문화의 융합으로 탄생한 위대한 걸작 '간다라 미술'이 서울을 찾아온다.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붓다-간다라 미술展'이 9월 30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간다라 유물의 최대 소장처 국립페샤와르박물관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카니시카왕 사리함' '부처님 발자국' '관음보살입상' '석가모니의 첫 선정(수하관경樹下觀耕)' '부처의 기적' '보살입상' 등 67점이 소개된다.

이번 간다라 미술전은 역대급 규모로 구성돼 남녀노소 모두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과서로만 접하던 간다라 유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집중과 재미를 더할 '관전포인트 셋'을 짚어봤다.

'간다라 역사'로부터 배우는 종교화합

간다라 미술의 탄생 배경은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356·323 BC)의 문화정책에 숨어있다. 동방원정에 나선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문화와 각 지역의 문화를 융합시킨 '헬레니즘' 문명과 동·서 문화의 교류 및 융합으로 이뤄진 새로운 예술양식 '간다라 미술'을 탄생시켰다.


라호르박물관 소장 '고행상'

이에 간다라 미술은 다양한 사상과 종교·민족·문화·관습 등의 평화로운 공존의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관을 맡은 한문화진흥협회는 "동·서양 문화융합의 결정체인 간다라 미술의 시대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현재 세계 곳곳에 만연한 국제적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가모니 고행상, VR·홀로그램으로 만나다

파키스탄의 국보 '고행상'이 세계 최초로 VR 및 홀로그램으로 제작됐다. 고행상은 파키스탄의 가장 오래된 라호르박물관의 소장품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꼽힌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간다리 미술 중에서도 최고 걸작으로 평가된다.

고행상은 이동 중 손상 위험으로 인해 이번 전시에 들여올 수는 없었지만, VR 및 홀로그램을 통해 가상현실 속에서 고행상을 보고 만질 수 있게 됐다.

어린이·청소년 도슨트가 설명하는 간다라

이번 전시에서는 전문가 해설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청소년들이 도슨트(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로 나선다. 도슨트들은 주한 파키스타 대사와의 인터뷰 및 전시관련 행사 등에서 활동하며, 문화유산을 통한 세계평화와 융합의 가치를 배울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세계문화외교사절단 증명서가 수여된다.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1시~오후 8시이며, 입장은 오후 7시 20분까지만 가능하다. 입장료 성인 1만원, 중·고등생 6,000원, 초등생 4,000원.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관.

이번 전시는 주한파키스탄대사관·페샤와르박물관·라호르박물관·예술의전당이 주최하고, 인터아트채널 및 한문화진흥협회가 주관한다. 또한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대한불교천태종·전라남도 영광군 등이 후원한다. (02)544-8401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부처님 발바국(부다파다, Buddha Pada). 부처의 발자국은 사람 형상을 한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 보리수, 스투파(불탑)와 같이 부처를 상징했다.


카니시카왕 사리함. 2AD 경 카니시카왕이 불교로 개종한 것을 기념해 세워진 샤지키데리(카니시카왕 대탑)에서 발굴됐다.


하리티와 판치카. 380x110x380mm.



3대 의승장 영규대사 진영 '최초 공개'

국립중앙박물관, 6월 28일부터 상설전시관서

영규대사의 진영이 사상 최초로 공개된다. 기허당 영규(靈圭, ?~1592)는 청허(淸虛)·사명(四溟)과 함께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3대 의승장으로 꼽힌다. 조선 후기에는 이 3대 의승장의 진영을 모신 표충사가 건립되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6월 28일부터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고승 진영(眞影)' 12점을 전시한다. 고승 진영은 문파의 조사나 수행의 경지가 높은 승려, 나라에 공훈이 있는 승려들의 초상을 말한다.

고승들의 진영이 한꺼번에 전시되는 것은 2012년 불교회화실에서 소개된 후 5년만이다. 이중 8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0년 구입한 것이다. 특히 영규대사 진영(구8583·사진)은 최초 공개되는 것이라 의미가 깊다. 부리부리한 이목구비와 좌우에 배치된 무구(武具)는 의승장으로서의 면모를 강렬히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란히 전시되는 또 다른 영규대사 진영(구8620)과 비교해 관람하는 것도 기대할만한 요소다.

이밖에 석가모니 설법 장면을 그린 '영산회산도', 세밀한 필치가 돋보이는 사경 등 한국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전시품도 함께 전시된다.

박아름 기자

엘엠비싱어즈가 부르는 김동환 찬불가곡

엘엠비싱어즈, 김동환 찬불작곡가 헌정음반 발표

찬불 성악중창단 엘엠비싱어즈(L.M.B.Singers)는 찬불음악 창작 명인들의 음악을 되살려 부르는 헌정 프로젝트 'Buddhist Song Maestro'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대상은 김동환 찬불가 작곡가다.



김동환 작곡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가곡과 클래식 명곡을 만든 음악 거장으로 평가된다. 1992년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과의 인연으로 찬불가 작곡에 입문한 김동환 작곡가는 1995년 창단된 BBS불교방송 가릉빈가합창단 지휘자로서 대한민국종교음악제에 참가하는 등 불법 홍보에 기여해왔다.

이번 음반 '엘엠비싱어즈가 부르는 김동환 찬불가곡'에는 '한 마음 있음이여' '부처님 내게 오셨네' '청산은 나를 보고' 등 김동환 작곡가의 주옥같은 찬불가들이 엘엠비싱어즈의 목소리로 담긴다. 1년 여 제작 기간을 거쳐 발표되는 만큼 16곡 모두 '명곡의 발견'을 이끌어 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엘엠비싱어즈는 1999년 창단돼 한국불교음악계에서 유일한 성악중창단으로 활동해 왔다. 그동안 4장의 창작 음악을 발표하고, 700여회 공연을 펼쳤다.

박아름 기자

